

다산포럼

정지창



1979년 10월 27일, 당시 모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였던 나는 새벽에 다급한 전화를 받고 허둥지둥 회사로 달려갔다. 예기치 않았던 대통령의 유고 소식에 편집국은 초긴장 상태였고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모두들 외신 기사를 지켜보며 정부의 공식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이 내근 당번이라 편집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취재기자가 밖에서 전화로 불러주는 기사를 원고지에 옮겨 데스크에 넘기는 일을 맡고 있었다.

'시해'는 봉건왕조시대 유산

이윽고 정부 당국의 공식 발표가 기사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요즘처럼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잘 들리지 않는 전화기로 기사를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전화를 한쪽 귀에 걸고 기사를 받아 적던 나는 '시

해'라는 단어가 낯설어 기사를 불러주는 후배 기자에게 몇 번이나 확인했으나 '민비 시해(弒害) 사건' 할 때의 '시해'라는

시해(弒害)인가 암살(暗殺)인가

대답이었다.

나는 물론 시해라는 용어의 뜻을 몰라 서 되풀은 것은 아니었다. 내가 아는 한 시해라는 용어는 왕조시대에 왕이나 왕비가 살해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에게 시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색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비록 정부의 발표문에는 시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인용문이 아닌 기사 본문이나 제목에 시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부모나 임금을 죽임'이라는 국어사전의 뜻풀이까지 보여주며 '시해'보다는 '암살'이나 '피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나의 주장을 데스크는 마감시간도 다 왔는데 그런 걸 따지고 있을 겨를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해버렸다.

시간을 다루는 사건기사일수록 마감시간과 다른 언론사와의 경쟁 때문에 기자의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지금도 쉽

게 고쳐지지 않는 우리 언론의 관행이었다. 더구나 오랜 유신체제 아래서 대부분의 언론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전달하는 일에 깊이 들어 있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단순히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왕이나 군주처럼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휘두르던 존재였기에 '시해'라는 왕조시대의 용어가 사용되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유신시대가 끝난 지 30년이 가까운데도 '시해'라는 용어는 아직

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5·16도 '혁명'이 아닌 '쿠데타'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지만 10·26만은 여전히 '박대통령 시해사건'으로 표기되고 있으니 이상한 일이다.

언론, 정확한 언어 사용을

단순히 뒷사람에 대한 예우나 존경의 차원에서 시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김구선생이나 링컨,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에는 왜 시해라고 쓰지 않는지 묻고 싶다.

이 문제에 관해서 역사학자나 언론인들도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허기야 '대권'이니 '김 메이커'니 '가신'이니 하는 말을 언론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상당수의 재벌과 교회가 세습을 당연시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의식은 아직도 봉건 왕조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다산연구소 제6>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한나라 '호남성공' 선언 진정성 보여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호남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나라당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에서 전국 대장정을 시작하며 '호남의 성공'을 선언한 것이다.

이 후보가 내달 중순까지 계속되는 '국민성공 대장정'의 첫 지역으로 광주를 선택한 의도는 어느 정도 짐작된다. 대선을 앞두고 '호남 꺼안기'를 본격화함으로써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민주당 이진재 후보 등을 견제하려는 속셈도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反)한나라당' 정서는 상당히 탈색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이 후보도 호남 유권자들이 호감을 표시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 후보 스스로 밝혔듯 진정성이다. 이 후보는 광주 체류기간중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이고 호남은 민주화의 총본산이지만 과거 산업화에서 뒤떨어진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에서 전국 대장정을 시작하며 '호남의 성공'을 선언한 것이다."

이 후보는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 이외에는 구체적인 지역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거창한 구호를 부르짖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거는 정치는 안 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호남인들이 국민통합에 앞장 설 것도 주문했다.

새 정치문화의 정착과 국민통합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후보가 언급한 '진정성'이다. 정략에 치우쳐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면 '호남 꺼안기'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위험수위 넘은 고층아파트 화재 불감증

광주지역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가운데 상당수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심지어 보완조치를 받고도 제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일선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점검 대상 아파트 273곳 가운데 소방시설 보완명령을 받은 아파트는 절반이 넘는 141곳에 이르렀다. 특히 37곳은 소방시설 보완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고층 아파트 소방시설의 열악성과 화재 불감증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는 경쟁적으로 초고층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도 20층이 넘는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는 초고층으로 솟아오르는데 비해 소방장비와 기술은 저층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와 경보장치 등 방화시설이 완벽해 있는 곳은 극

히 일부에 불과하다. 고층 아파트 역시 경보장치 고장, 진압장비 부족 등으로 대형화재에 방치돼 있음이 이번 점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화재 불감증이다. 소방서로부터 시정보완조치를 받고서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산집행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는 철차상 이유를 들어 방치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시설 보완은 '선(先)조치, 후(後)보고' 형식으로 예산 집행 절차를 변경해야 한다.

고층아파트의 화재는 대형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고층아파트의 소방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정기 점검 등으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 경각심을 높여 소방안전 수칙 등을 꼼꼼히 익히는 등 화재 불감증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無等鼓

"1995년 대구에서 삼성과 경기를 하다 8회말 역전타를 맞고 진 적이 있다. 경기가 끝난 뒤 더그아웃 뒤편에서 난리가 났다. 불 배합 문제로 화가 난 코치가 나를 심하게 꾸짖었다. 이단옆차기까지 날아왔다. 난 소수 장비만을 한 채로 엄청 맞았다. 코치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어 눈물을 펄펄 쏟았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고의 포수로 인정받고 있는 박경완(SK)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자신의 과거사 한 토막이다. 당시에 폭력 아닌 폭력(?)을 행사한 코치가 바로 지난해 KIA의 새 사령탑에 앉은 조범현 감독이다.

조 감독은 박경완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쌍방울 시절 그는 포수 출신인 조 감독을 코치로 만나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기술과 근성을 전수받아 오늘날 '최고의 스타'로 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는 조 감독의 훈련은 정말 지독했다고 떠올렸다. 흠으로 달려드는 선수를 몸으로 부딪치며 막는 블로킹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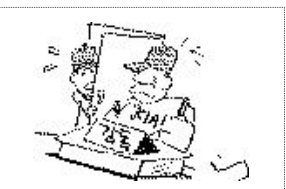
만 하루에 적게는 700번, 많으면 1천번을 했다고 한다. 힘들어 울면서 블로킹을 했을 정도였고 '오직 운동, 운동'하다가 그대로 잠이 든 적도 있다고 회고했다.

박경완의 기억대로라면 KIA팬들로서는 조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넘친다. '이변에야말로 호랑이를 호랑이답게 키워낼 용장(勇將), 명조련사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는 부임인터뷰에서 데이터야구와 자를 야구를 천명했다. 훈련은 혹독하지만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맡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더욱 신뢰가 간대.

감독이 자신의 의지와 컬러대로 팀을 이끌어 가도록 믿고 지원해야 한다. 대신, 조 감독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훈련량을 늘리고 실력오르만 선수들을 평가해야 한다. 그는 지금까지 내내 시즌내내 '명가 재건'과 "V10 신화창조"의 무게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생각을 말아야 한다. /기현호 체육·여론대부처장 khh@

'명가 재건'



NGO 칼럼

최은순



사교육비, 우리 나라의 학부모라면 이 말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올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한해 사교육비가 30조~40조원 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통계조차도 낼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영어 사교육비는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부모에게 부담이 크다.

그런데 인터넷(국제검색)이 지난 8일 전세계에 공개수배한 아동 성추행범이 며칠 전까지 광주 외국인 학교에서 강사로 재직할 사실을 접하면서 학부모들은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탐은 2003년 당시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6세부터 10대의 소년들 수십명을 성

조건이 돼 버렸다. 태아교육부터 영어는 시작된다. 예전에는 아이의 감성지수를 높이기 위해 클래식 음악을 들었던 것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영어와 친숙해 지기 위한 영어테이프를 먼저 듣는다. 영유아교육기관 역시 영어중심시설이 완벽한 곳으로 보인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곧바로 학교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로 사교육으로 향한다.

그 결과 영어생활화라는 핑계로 우후죽순 영어타운이 들어서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지방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원어민처럼 유창한 발음과 현장성 있는 교육을 기대하면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영어 열풍

추행했고, 이런 행위가 담긴 사진을 자신의 얼굴만을 가린 채 인터넷에 올린 것도 확증 한자였다 것이다.

몇 달 전에도 원어민 강사가 환각상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도됐고, 알고리즘독자·학위위조자·실력미달 무자격자들이 많다는 내용이 심심찮게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1차적인 책임은 해당국가 기관과 학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국가기관에서는 원어민 강사에 대한 정확한 취업자나 건강확인서, 자격증 등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영어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수요에 따른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를 기대하는 어려울 것이다.

영어가 공영어가 되면서 영어는 이제 우리 한국사회에서 한글보다도 더 필수

조건이 돼 버렸다. 태아교육부터 영어는 시작된다. 예전에는 아이의 감성지수를 높이기 위해 클래식 음악을 들었던 것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영어와 친숙해 지기 위한 영어테이프를 먼저 듣는다. 영유아교육기관 역시 영어중심시설이 완벽한 곳으로 보인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곧바로 학교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로 사교육으로 향한다.

그 결과 영어생활화라는 핑계로 우후죽순 영어타운이 들어서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지방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원어민처럼 유창한 발음과 현장성 있는 교육을 기대하면서

'자장면' 표기, 발음 편한 '짜장면'도 병행 했으면

'짜장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표적 음식이다.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쓴 독후감을 읽어보다가 짜장면이 아닌 자장면이라고 쓴 글씨를 보고 잘못 썼다고 한마디 했다다가 부끄러웠다. 자장면이 표준말이라고 했다.

이 말에 어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상당수가 짜장면으로 발음하고, 그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장면이라

고 쓰고 발음하러니 도무지 입에 익숙하지 않다. 중국어의 원소리 '짜'는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발음이고 짜장면 역시 수십년 아니 백여년 우리에게 친숙해진 음식이자 발음이다. 굳이 맞춤법이라는 규정으로 자장면으로 발음하려는 의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

말은 그 자체가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말에 헛갈리게 하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쓰기 좋고 발음하기 편한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닐까. <권운영·광주시 서구 치평동



세상에서 가장 큰 '나는새'를 만나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새는 타조다. 그러나 타조는 주급류(走禽類)라고 하여 달리는 새일 뿐이다. 날 수 없는 새다. 타조 말고도 레아, 에뮤, 펠린, 키위 같은 종류가 모두 주급류에 속한다.

땅에 사는 것에 맞도록 진화가 거듭되면서 이제 타조를 날게 하는 것은 현대의 첨단 기술로도 거의 불가능하다. 나는 걸 포기하고 육상 동물로의 진화가 거듭되면서 목숨이 위태로워진 것 이러한 동물들이다.

인간이 데려온 야생 고양이나 개들 때문에 뉴질랜드 키위는 멸종단계다. 날지 못하는 새처럼 순수한 먹잇감은 없을 것이다. 타조나 에뮤같이 큰 새들도 도망치는 것 외에는 살 방법이 없다.

날아다니는 새들 중 세상에서 가장 큰 새는 사진 속 넓적부리(shoebill) 황새이다.

아프리카의 늪지대에 불박혀 살면서 몸이 무거워 잘 날지는 않는다. 날아도 멀리 가지는 못한다. 겨우 천적을 피할 정도만 날지만 이 비상 때문에 타조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의 생존을 보장 받았다.

생김새는 한 마디로 참 희한하게 생겼다. 눈은 부리부리 하고 부리도 크다. 그 무게만 줄여도 더 잘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 덩치 크고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유명해진 새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다.

너무 잘 생겨도, 지나치게 희한하게 생기거나 못 생겨도 괴로운 게 지금 동물들의 희한한 운명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택시·버스도 예의없이 음주단속 해야

음주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나 트럭들뿐 아니라 택시와 버스도 예의없이 음주단속을 해야 한다.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응하다 보면 경찰관은 앞서가던 택시나 버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냥 통과호를 보내준다. 지금까지 택시에게 음주단속을 하는 사례를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게 나 뿐일까.

음주단속에는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고 특히 승객을 태우는 택시며 버스기사들은 일반시민보다 음주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

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는 택시나 버스는 대중 교통 수단이라 그 안에 탄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것을 우려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편의를 봐준다는 것이 자칫 이들의 음주운전을 봐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만큼 버스과 택시에게도 예의없이 모두 단속을 해야 옳다.

예외 없는 단속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막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버스과 택시 기사들도 이같은 음주단속에 적극 협조 해야할 필요가 있다.

▲노정숙·광주시 서구 농성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인국내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대우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5)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